박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중인 4 학년 유기성 학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맡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멤버 중 한 명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히기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저 유기성을 뽑으시면 좋은 점 5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자주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닉스/리눅스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면 리눅스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 저는 쉽게 적응할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 년 봄 무렵부터 저는 리눅스를 메인 운영체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눅스 초심자도 쉽게 이용할수 있다는 Linux Mint를 시작으로 CentOS 7, Ubuntu 16.04, Fedora 27 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툴(Eclipse, VS Code, SublimeText, Git)과 프레임워크(LAMP, MEAN, Maven, Anaconda) 설치를 해보면서 리눅스 환경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 좋게 지인으로부터 맥북프로를 양도받아서 Mac OS Sierra 까지 사용해 봤습니다. 2018년 1월에 구입한 Lenovo y520 노트북에는 Ubuntu 16.04 LTS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한해 동안 총 8번의 포맷과 바이오스 세팅을 진행했고, 현재는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와 보다 친숙해진 상태입니다.
- 2. 연구를 진행하는 팀이라면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기술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신 기술은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서를 읽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시행한 TOEIC 시험(02.25)에서 925 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강중인 교수님의 과목 '빅데이터 처리'에서 내주신 첫 번째 과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내며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과제를 내실있게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속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된 글을 읽는 속도의 60-80% 정도의 속도로 영어 텍스트를 독해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첫째 과제를 목요일에 내 주셨는데 일요일에 제출완료 했다는 점이 증거입니다.
- 3.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연구 수행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1 전공인 아프리카학부 동기들은 저를 '유교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과제 리뷰를 진행하면서 저의 레포트를 우수 예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마음에 교수님의 질문에 아는대로 대답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을 뿐인데 동기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시기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봐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전공인 컴퓨터공학과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열정맨'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일과 후에 도서관에 남아서 11 시 30 분이 넘기 전까지 제 할일을 하곤 합니다. 학생의 본분이니 당연히 해야할 일이겠지요. 또한, 중간에 벽에 부딪치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저의 끈기와 의지력을 긍정적으로 봐줘서 친구

들이 제게 이와 같은 별병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조직 내에 있다면 함께 일하는 팀원들도 사기가 진작될 것입니다.

4.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한다면 석사, 박사과정을 진행중인 대학원생, 교수님 그리고 고문(consultant)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는 형, 누나들과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별다른 갈등없이 잘 지내곤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학우에 3 살 동생부터 30 살 늦깎이 대학생까지 있을 정도로 누구와도 허물없이 잘 지냅니다. 제가 작년까지 참여하던 교외 독서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연령층은 대부분 30 대 이상 직장인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다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만약 저를 선택하신다면 대학원생, 교수님께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이행하며 막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 저는 현재 학교 앞 작은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학 중까지 업무가 지속**되더라도 저는 **연구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그 외 팀원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호출하신다면 언제든 1 시간 이내로 연구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꼭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교수님이 해주시는 유익한 조언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학부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 팀 한 팀을 섬세하게 신경써주시는 교수님의 성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점이 감사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연구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201202139 유기성을 뽑아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04. 06

유기성 드림